ZOOM -IN

디폴트옵션 시행에 따른 금융권 동향

□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며, 최근 디폴트옵션 설정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크게 증가

□ 퇴직연금 적립금은 은행업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최근 IRP의 성장 기조에서 적립금 증가율 및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율은 증권업이 가장 높음

□ 디폴트옵션 상품 출시 후 6개월 동안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목표수익률을 상회하여 운영 중

□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대부분 은행업의 초저위험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수익률 상위 상품에는 증권업 상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

□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 심화 및 다양한 디폴트옵션 상품 출시가 예상되며, 양질의 상품 출시와 가입자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한 환경 구축을 위해 금융당국은 적격상품 검증 역량 강화 및 투명한 공시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

□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꾸준한 성장 기조를 이어오고 있으며 DC 및 IRP 성장에 힘입어 2023년 2분기말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345.8조원을 기록하여 2015년 대비 약 2.7배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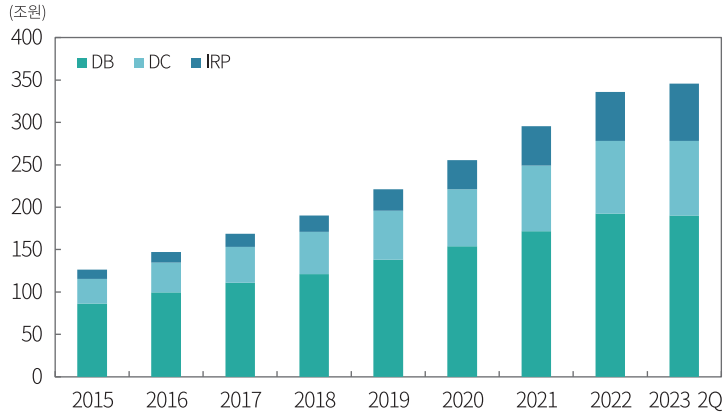
—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DB(Defined Benefit, 확정급여형)는 2023년 2분기말 190.2조원으로 55%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5년 대비 13.3%p 감소

—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는 DC(Defined Contribution, 확정기여형) 및 IRP(Individual Retirement, 개인형퇴직연금)의 성장이 주된 요인으로 2023년 2분기말 DC 및 IRP가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5.4%, 19.6%를 기록하여 2015년 대비 각각 2.4%p, 11%p 증가

- 2015년부터 2023년 2분기말까지 DC 및 IRP 적립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7%, 30%를 기록
- 최근 IRP의 증가는 세제혜택, 퇴직금 IRP 이전 의무화[1] 및 수수료 인하 등이 주요 원인

1) 근퇴법 개정으로 2022년 4월부터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근로자 명의의 IRP로 지급할 의무가 부과

〈그림 1〉 제도 유형별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



주 : 1) DC에는 기업형 IRP가 포함
2) 2023년 2분기말은 근로복지공단 부문 제외
자료: 금융감독원·고용노동부

□ **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의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던 디폴트옵션이 1년간의 사전 준비 등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본격 시행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크게 증가**

—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운용 수익률이 낮은 원리보장형 상품의 편중도가 높으므로 퇴직연금 자산관리의 효율성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디폴트옵션이 도입

• 디폴트옵션은 DC 또는 IRP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

— 2022년 1월 디폴트옵션 도입을 골자로 하는 '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'이 개정되었고 2022년 7월부터 1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부터 전면 시행

• DC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디폴트옵션 설정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원칙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

— 디폴트옵션 설정 의무화가 시행되고 IRP가 성장함에 따라 디폴트옵션 상품 설정을 통한 퇴직연금 시장 확대 및 활성화가 예상되면서 퇴직연금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·보험·증권 등 금융권의 관심이 크게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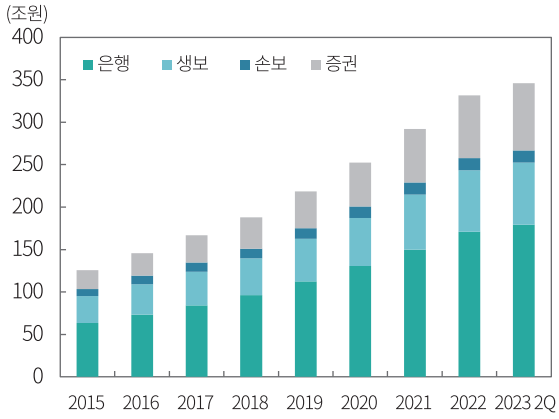
□ **퇴직연금 적립금은 은행업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최근 IRP의 성장 기조에서 적립금 증가율 및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율은 증권업이 가장 높음**

— 퇴직연금 적립금은 은행업이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~2023년 2분기말까지 은행업의 퇴직연금 적립금 점유율은 49.8~51.8% 사이를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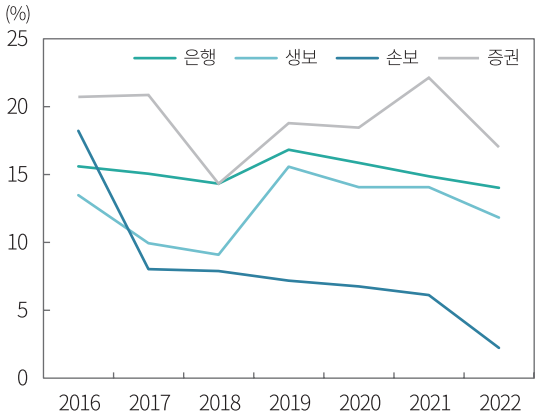
— 최근 IRP의 고성장세에 기인하여 증권업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2년말 생보의 점유율을 최초로 초과

- 증권업 IRP는 2020년 48.7%, 2021년 61.4%, 2022년 30.5%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도 증권업이 가장 높은 추이를 보임
- 2022년말 증권업의 퇴직연금 적립금 점유율이 22%를 기록하며 생보(21.6%)의 점유율을 최초로 초과하였고 2023년 2분기말 현재 증권업과 생보의 퇴직연금 적립금 점유율은 각각 22.9%, 21.1%를 기록

〈그림 2〉 금융업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



〈그림 3〉 금융업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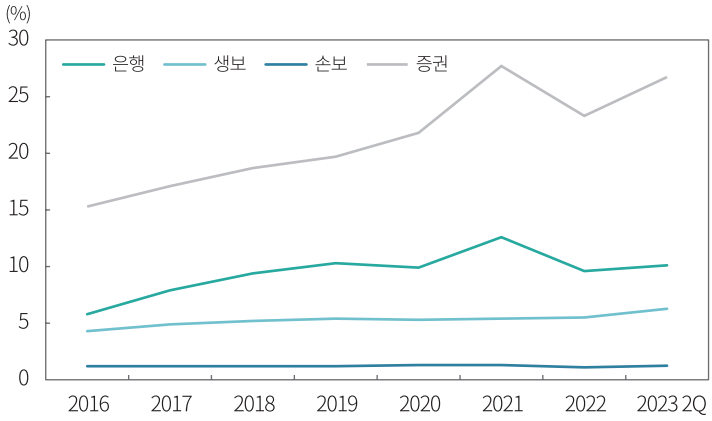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·고용노동부

— 은행업과 증권업에서 실적배당형[2] 상품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보험업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

- 은행업과 증권업의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2021년 각각 12.6%, 27.7% 기록하며 2016년 대비 각각 6.8%p, 12.4p%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3년 2분기말 현재 은행업과 증권업 각각 10.1%, 26.7% 수준으로 회복
- 2022년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 감소는 경기 침체 및 주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주식형과 채권형 모두에서 운용 규모가 감소한 데에서 기인
- 생보와 손보의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각각 6.3%, 1.3% 미만

2) 제도별로 DB와 비교하여 DC 및 IRP에서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이 높으며 2022년말 기준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DB 4.1%, DC 16.7%, IRP 27.3%

〈그림 4〉 금융업권별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 추이



자료: 금융감독원·고용노동부

— 장기 수익률의 경우 2022년말 현재 5년 연환산 수익률은 생보가 1.76%로 가장 높으며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증권업이 2.06%로 가장 높게 나타남[3)]

□ **디폴트옵션 상품 출시 후 6개월 동안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목표수익률을 상회하여 운영 중**

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296개의 상품 중 2023년 6월말 현재 31개 퇴직연금사업자의 223개 상품이 실제 판매·운용 중

—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2023년 6월말 약 1조 1,01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.7배의 대폭 증가를 기록하였고 IRP 디폴트옵션 적립금 비중이 높으나 DC 디폴트옵션 적립금이 빠르게 증가

- 제도별로 DC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3,00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5배 증가했으며 IRP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8,01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.9배 증가
- 제도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디폴트옵션에 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는 DC 운영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DC 디폴트옵션 적립금 증가에 영향

— 총 가입자 수는 약 200만명(DC 97만명, IRP 103만명)으로 전분기 대비 약 7.8배 증가

— 운용 중인 상품의 6개월 수익률은 평균 약 5.8%[4)]로 목표수익률(1년 수익률 6~8%)대비 높은 수익률 성과를 보임

- 위험등급별 평균 수익률은 초저위험 2.26%, 저위험 4.23%, 중위험 6.09%, 고위험 8.88%을 기록

3) 금융권역별 5년 연환산 수익률은 은행업 1.36%, 생보 1.76%, 증권업 1.57%, 손보 1.7%이며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은행업 1.78%, 생보 2.04%, 증권업 2.06%, 손보 1.97%

4) 설정 후 6개월 이상 된 디폴트옵션 상품의 개별 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값임

□ **디폴트옵션 적립금은 은행업의 점유율이 높고 대부분 초저위험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수익률 상위 상품에는 증권업 상품의 비중이 높음**

— 2023년 6월말 현재 6개월간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금융업권별 점유율은 은행업이 90%로 매우 높음

• 증권업이 9.4%, 생보와 손보는 각각 0.3% 차지하고 있음

— 위험등급별 적립금은 초저위험 상품의 비중이 매우 높으나 증권업에서는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·중·저위험 상품의 비중이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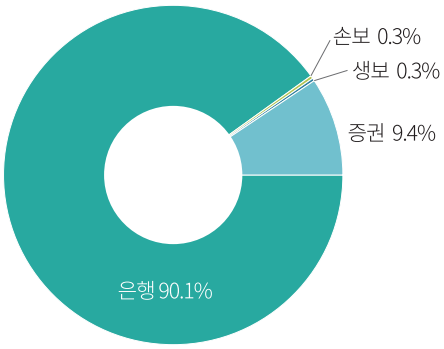
• 디폴트옵션 적립금에서 초저위험 상품 비중은 85%로 매우 높으며, 금융업권별 초저위험 상품 비중은 은행업 88%, 생보 93.1%, 증권업 58%, 손보 87.6%

• 증권업은 고·중·저위험 상품의 비중이 각각 11.8%, 13.5%, 16.7%로 다른 업권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위험등급별 상품 비중이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하여 고위험은 9.5%p, 중·저위험은 각각 10%p 이상 차이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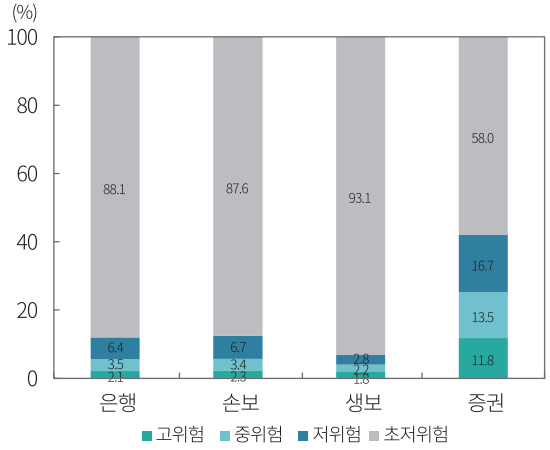
— 위험등급별 수익률 상위 상품 그룹에는 증권업 상품 가장 많이 진입

• 위험등급별 6개월 수익률 상위 5개 상품 그룹 중 중위험 상품 그룹을 제외한 초저위험, 저위험 및 고위험 상품 그룹에서 증권업 상품이 3개 이상 진입

〈그림 5〉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금융업권별 비중



〈그림 6〉 금융업권별 위험등급별 상품 비중



자료: 금융감독원·고용노동부

□ **향후 퇴직연금 시장 확대 및 자금 이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 심화 및 다양한 디폴트옵션 상품 출시가 예상되며, 과다한 수익률 경쟁을 방지하고 양질의 상품 출시와 가입자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한 환경 구축을 위해 금융당국은 적격상품 검증 역량 강화 및 투명한 공시 체계확립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**

— 제도 시행에 따른 의무화 및 규정 변경 등으로 디폴트옵션 상품 가입 확대 및 가입 상품 전환 니즈에 따른 자금 이동이 예상

- 2023년 6월말 현재 DC 운영 사업자의 76%가 퇴직연금규약 변경을 하였으며, '디폴트옵션 상황반' 활동 등을 통한 금융당국의 제도적 지원에 따라 디폴트옵션 설정 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원리금보장상품 자동재예치 제도 폐지로 앞으로 가입자가 만기 도래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만기 도래 자금은 대기성자금[5]으로 운용되므로 수익률을 고려한 디폴트옵션 지정 유인 발생
- 디폴트옵션 시행 초기에는 초저위험 상품 수요가 높지만 제도가 안정화되면서 물가 상승률 및 노후 대비자금 여력을 고려하여 기존의 안정성 추구 상품에서 적정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퇴직연금 운용 상품으로 전환하려는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

— 금융권에서는 기존 가입자 이탈을 막고 새로운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금융권역별 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품과 역량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 및 준비 중

- 증권업에서는 디폴트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MTS 시스템 구축, 해외 디폴트옵션 상품의 장점을 적용한 상품 시리즈 출시, 디폴트옵션 상품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차별화된 상품 포트폴리오 개발 등 가입자에게 편의성과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
- 적립금에 부문에서 강점이 있는 은행업에서는 디폴트옵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담 조직 구성, 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고용 등 수익률 제고 노력과 함께 조직 및 서비스 역량을 활용 중

— 퇴직연금사업자의 디폴트옵션 상품 경쟁력 제고와 가입자의 위험성향에 따른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돕기 위해 금융당국은 적격상품 검증 역량을 강화하고 사후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을 위한 투명한 공시 체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

- 사전적으로는 상품 승인과정에서 적격상품 검증 역량을 강화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양질의 상품을 제시할 수 있는 유효 경쟁 환경을 구축할 필요
- 디폴트옵션의 성과가 쉽고 투명하게 평가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별 성과와 함께 개별상품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세분화 된 공시 체계 확립이 필요

선임연구원 한아름

5) 대기성자금이란 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 보험,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을 의미